

#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 Q & A

## Q.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란 무엇인가요?

A. 신체발달의 정도는 신체검사를 통해서 확인하듯이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는 학생의 성격특성과 정서·행동발달의 정도를 평가하고 성장과정에서 흔히 경험하게 되는 인지·정서·사회성 발달과정의 어려움을 조기에 평가하여 신속한 도움을 제공하기 위해 실시하는 선별검사입니다. 교육부는 학생들의 정신건강을 위한 지원책으로 2007년부터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를 실시해오고 있습니다.

## Q.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는 선별검사라는데 어떤 의미인가요?

A.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는 의학적 진단검사가 아닙니다. 정서행동 상의 어려움을 가진 학생을 발견하고, 전문기관 연계를 통해 개입 조치하기 위한 검사입니다. 검사에서 총점이 기준점 이상인 경우, 전문가 면담 및 심층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전문기관 연계를 권장합니다.

## Q. 왜 이런 검사를 하나요?

A. 아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마음건강과 스트레스 관리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학생의 성격특성을 파악하고 정서·행동의 어려움을 조기에 발견하여 성장기 스트레스를 건강하게 잘 관리하고 극복하는데 필요한 도움을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 학생 정서·행동 문제에 적절히 개입한다면 학업 성취도가 향상되며 학교 부적응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 Q.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에서 사용되는 검사도구는 신뢰할 수 있는 것인가요?

A.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는 학교를 기반으로 학생들의 성격특성과 정서·행동 발달정도를 평가하기 위해 다양한 학문적 배경의 국내 전문 연구진에 의해 개발된 신뢰도와 타당도가 검증된 선별검사도구입니다.

## Q. 초등학생의 경우, 부모가 설문지에 답변한 것으로 관심군을 결정하는 것이 맞나요?

A. 예, 맞습니다! 초등학생의 경우 부모님이 자녀의 정서·행동특성검사에 답변한 결과를 토대로 평가합니다. 아이의 일상생활에 대해 부모님이 잘 아시는 경우가 많고 혹여 아이가 더 잘했으면 하는 모습들을 부모님이 체크하게 됩니다. 이 검사로 아이의 정서·행동 발달 경향을 확정할 수는 없지만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 필요하고 다시 한 번 우리 아이의 마음건강을 되새겨볼 필요가 있다는 의미입니다.

## Q. 설문지 문항 몇 개로 어떻게 아이의 심리상태에 대해 평가할 수 있나요?

A.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는 성격특성과 해당 연령대에 흔히 나타나는 정서·행동문제를 개략적으로 파악하는 선별검사입니다. 이 검사로 아이의 심리상태를 모두 파악할 수는 없으며, 아이의 마음상태에 대해 보다 심층적, 객관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외부의 도움을 필요로 하신다면 전문기관과 연계하여 건강하게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 Q. 우리 아이가 관심군 판정을 받았는데, 이건 무슨 의미인가요?

A. 관심군 판정을 받았다는 것은 학생의 해당 연령, 성별에 비해 정서·행동문제의 총점이 일정 이상 높은 점수가 나온 것을 의미하며, 그 자체로는 학생의 심리문제를 모두 파악하거나 특정 정신과적 질병이 있음을 의미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다만, 집중력의 저하나 불안, 우울, 학습부진, 사회성부진, 짜증 등 부정적 기분, 반항적 태도, 스트레스, 자기통제부족 등의 경향성을 또래에 비해 비교적 많이 나타낸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Wee센터, 정신건강복지센터 등 전문기관에서 추가적인 평가를 받는다면 아이의 상태에 대해 더 자세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